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박영택
<경기대 예술대학 교수>

“

남의 안목과 감각을 날로 먹을 수는 없다. 미술을 진정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체득하는 다소 지난한 노력은 스스로 해야 한다.

”

전시장 어디있나?

그러나 먼저 그림 보는 일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 앞에 오래도록 서서 음미하고 흡흡고 자기 몸의 반응을 살피는 일은 감상이다. 그리고 이 일은 꼭 돈과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감수성 향상이라고 하는 문화활동

최근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미술 전시회에 가본 사람은 1997년도를 기준으로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27.3%에서 6.8%로 격감했다고 한다.(200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전에 비해 미술계 규모도 커졌고 일부의 미술지원 예산도 많아졌으며 대중을 위한 다양한 미술 강좌와 쉽고 친절한 미술안내서를 자처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시장을 찾는 이들은 지금 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전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반 대중들은 전시장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사실 전시장에 가는 일은 영화나 연극, 뮤지컬을 보는 일에 비해 심심하고 다소 난해 할 것이다. 그림 보는 일은 교육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미술은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이다. 그럼 돈 있는 이들은 왜 미술을 익히려고 하는가? 고가의 미술품이 분명 투자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부에 어울릴 감각을 '루이비통'처럼 몸에 지니고 싶기 때문이다. 고상한 심미안, 예민한 안목은 평생에 품위에 직결되기에 그렇다. 일단 그런 것을 시작적으로 확보해준다고 여기는 작품을 산다.

그래서 한국 콜렉터들의 집에는 거의 동일한 작가의 작품들도 도배되어 있다. 화상의 달콤한 혜에 의존해 살피기 때문이다. 눈이 없으나 귀에 의존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도 눈을 갖고 싶다. 그래서 미술에 관한 친절한 정보, 자신의 안목과 감식안을 대신해줄 누군가의 눈을 사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 미술을 쉽고 친절하고 재미 있게 안내해 줄 전문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출판사들마다 전략적으로 쉽게 읽히는 미술책들을 폐내고 있는데 그 해설자의 말씀에 따라 책은 문예적 성격을 진하게 풍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대중화 전략으로 다가온다.

사실 대중이 즐기는 건 미술 자체가 아니라 해설자의 이야기다. 이처럼 말랑거리는 문학적 수사와 가볍고 상식적인 내용들로 수놓아진 대

다수의 미술책들이 미술의 대중화란 이름으로,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엮여 나온다. 그런 책들이 미술체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책이 전시를 대신 할 수 있을까? 미술이 독서로 대체될 수 있나?

스스로 깨닫고 체득하는 노력을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미술의 경험과 교육은 좀 다르다. 오리지널 그림을 보려면 화랑이나 미술관에 직접 가야한다. 복제된 이미지만으로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은 분명 장애가 있다. 충분치 않다. 모든 예술체험은 제 속에서 일어나는 둘째 개별적인 느낌인데 간편한 해설은 결국 해설자의 것, 남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 접하는 것, 그것도 악식으로 취하는 것이다.

남의 안목과 감각을 날로 먹을 수는 없다. 미술을 진정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체득하는 다소 지난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 모든 예술향유가 그렇지 않을까? 분명 전문가들의 적절한 조언은 필요하지만 말로 고정되는 미술은 어딘지 공허하고 궁핍해 보인다.

그러나 가까운 전시장에 가서 그림 앞에 서볼 일이다. 일단 말을 지우고 몸으로 말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무안국제공항 개항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무안국제공항은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나주혁신도시 등 전남지역 전략사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개항이 되면 이를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이 호남권의 거점공항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더욱이 개항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97년 개항돼 '동네 공항'으로 전락한 청주국제공항 풀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무안국제공항은 그동안 경제성 논란으로 개항이 3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오는 2010년도 예상 이용객이 연간 200만명으로 수용 규모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치도 광주공항 폐쇄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적자가 불가피하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민 열어놓고 찾는 손님이 없다면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J프로젝트 등 서남권지역 전략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개항 전에 승객과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우선 국내외 항공편 유치와 공항주변 교통망의 조기구축,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계획과 홍보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취항을 원하는 국내외 항공사에 문호를 개방하고, 심야에도 국제선 항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오픈 스카이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 국내 타공항에 비해 동북아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픈 스카이 정책은 필요하다. 광주공항과의 중복부자 논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공항 폐쇄문제는 하나님의 경제권인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가계발 금융위기 '경고음' 심상치 않다

일반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3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가용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 1.42%로 2005년 1.35%보다 높아졌다. 2002년 미국과 일본을 추월한 이후 지난해 미국 1.38%, 일본 1.18% 등과 비교할 때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6%에 그친 반면 금융부채 증가율은 11.6%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상공회의소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2.3%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소득증가

율을 웃돌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리 여건이 좋지 않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타며 뛰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재자값 상승에 따라 가스와 휘발유 요금이 뛴따라 오르는 등 물가동향도 심상치 않다.

금리나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부채 상환 압력을 받는 서민들은 주택이나 토지 등 실물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값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 발 금융위기의 '경고음'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까지 오르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 억제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유도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건조한 날씨 속, 엊그제 반기운 봄비

가 내렸다. 순간 풍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비였지만, 최고 50mm나 쏟아져 바싹 마른 논밭이 다소나마 해갈됐다. 길거리 우산은 쓴 사람들의 걸을길 이도 느릿하고 여유롭다. 사무실 창밖, 비 내리는 도심 풍경을 끌그려며 쳐다보는 마음도 넉넉하다.

기상청은 봄비가 그치면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맑은 날이 계속되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을 것이라는 예보다.

낮 최고 기온도 예년 수준인 15~22도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모내기를 준비하는 농촌 들녘은 그러나 걱정이 태산이다. 저 수지는 바다를 보이고 모판의 물이 충분치 않기 때문일 게다. 하여, 이런 유쾌한 상상

은 어떨까? 기상청의 예보가 빙자가 많은 비가 쏟아졌으면 하는 것, 폭우로 학교나 직장이 며칠 쉬었으면 하는 허황된 꿈 같은 것들 -.

혹 봄비가 내린다면, 따뜻한 커피 한잔의 여유 속에 김주자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ans@kwangju.co.kr

을 소리에 / 마음을 달래도 /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 빛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 한없이 흐르네 // 봄비 나를 울려

주는 봄비 / 언제까지 내리려나 / 마음

마저 물려 주네 봄비 /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 빛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최희석

오늘날 암질환은 선진국을 포함해 발병률 및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현대병으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그 예방과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 오늘까지 끊임없이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아 암은 아직도 불치병, 난치병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현대의학에서 암은 난치(難治)일 뿐 아니라 대체요법이나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 원인과 병리적인 발생기전 등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밝혀져 그 방책으로 예방과 조기치료는 가능하다.

암 예방 조기검진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발생 인구의 1/3은 예방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 암의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암의 조기진단과 그 치료가 아직까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암의 예방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면

▲발병률 및 사인(死因) 1위로 어떤 질환보다 그 예방이 중요하다. ▲막대한 예산과 투자,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끊임없이 암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대부분 발견되는 3기(期)를 지난 암환자의 생존율은 극히 낮다. ▲암에 관한 국가 및 개인적인 의료비 지출이 높다. 이밖에도 암의 진단이 불명확해 뒤늦은 경우도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병인(病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주로 흡연·식이요인·만성감염에 기인한다고 보며, 이외에 직업, 유전, 음주 및 방사선, 환경오염 등이다. <소성한의원 원장>

암으로, 기관지 천식을 10여년 앓은 질환자가 다른 부위에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환자 되는 경우는 바이러스 암을 제외하고 극히 드물다. 대부분 수년이상 질병을 앓아오다가 견디지 못한 상황에서 발암이 이루어지고 발현된다.

의학적인 한계암이라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증상으로 표현되는 증후와 상태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암의 진행을 막거나 암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미병(未病)의 상태라면 암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암은 바이러스성 같아 어느 한순간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발생은 수개 월에서 수년, 수십년에 걸쳐서 발현되므로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불건강한 건강상태가 있다면 개선하는 치료로써 암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소성한의원 원장>

기고



남상창

5월은 낯선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처럼 가슴 설레는 계절이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애창처럼 남도 들녘에는 온갖 꽃들이 만개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

꽃향기만 싣고 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계절이다.

그래서 5월을 만들이 악동하는 계절이라 했고 계절의 여왕이라 했다. 한번쯤 5월의 향기에 취해 자연의 주인이 되어 보자. 눈과 귀를 남도로 돌려보자.

남도는 축제의 고장

그 곳에는 역동적인 힘으로 빛어내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남도 대나무 축제를 비롯해 장흥 키조기, 보성 다향제, 장성 흥길동, 완도 장보고 축제 등이 펼쳐지고 있거나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언제나 찾고 싶고 계절에 관계없이 머물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남도다. 예전에는 젊은 성과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서 찾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SOC가 확충되어 수도권과 불과 3시간대다. 다시 말하자면 접근성이 크게 호전되어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찾아지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6천400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과 2천여개의 아기자기한 섬들이 파란 바다

족이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널려 있기도 하다.

이러한 남도를 한번쯤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토끼풀 꽂반지 끼고 시냇가 벌들이 꺾어 불던 고향의 향수를 찾고 싶다.

그렇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스런 가족과 함께 남도로 가보자. 삶의 무게에 허리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스런 가족과 함께 남도로 가보자. 삶의 무게에 허리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다.

하루쯤 자신